

《지식의 발견》 선정기

지식인 사회의 문제적 담론에 대한 재발견



근대, 민족, 국가, 역사... 구체적 삶의 공간과는 유리된, 거대담론의 표제어들인가. 하긴 어떤 의미의 태두리에 드느냐에 따라 그 감축은 달라진다. 일상을 규정하는 예민한 조건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저 무미(無味)한 관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허나 소박한 나날에 충실해야 할 의무와, 시대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 없다면, 이들은 보편의 인생살이와 통하는 접속용어가 될 수밖에 없다. 비범치 않은 모든 삶을 포괄하는 의제이며, 특별할 것 없는 행위와 사람을 특별하게 의미짓는 규범일 수도 있다. 이달 서가에 꽂힌 책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가져본 뜬금없는 생각이다.

계절이야 바뀌건 말건, 시절이 수상하건 말건, 지식의 창고는 늘 넘쳐나는 법. 이달에도 (출판저널)엔 불과 3주 남짓에 산더미처럼 책이 쌓였다. 박노자의 《열강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김한규의 《천하국가》, 전지영의 《근대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 고명섭의 《지식의 발견》, 김정욱의 소설집 《장국영이 죽었다고?》, 김연수 소설집 《나는 유명작가입니다》, 유창주 외 32인의 《교회에 관한 33가지 유쾌한 상상》, 이구열의 《우리 근대미술 뒷이야기》, 이미지프레스의 《여행하는 나무》, 이청준의 《이청준 판소리 동화》, 김제완 등의 《상대성 이론 그후 100년》, 마광수의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안병수의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등은 그 중 (출판저널) 기자들이 고심을 거듭하며 고른 책들이다.

다시금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우선 김한규의 《천하국가》, 전지영의 《근대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 고명섭의 《지식의 발견》, 김정욱의 《장국영이 죽었다고?》를 '이달의 책' 후보감으로 골랐다.

《천하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역사공동체'와 '국가공동체'란 이분법적 역사분석도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국적 역사관과 세계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주변국간의 길항을 조명한 저자는 "국가와 역사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간 관계와 역사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일치시키려는 태도는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했다. 그래서 초원유목 역사공동체, 요동·서역·티베트·강지·만월·대만 역사공동체 등과 '국가'와의 구획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근대의 삶에서 쓸개를 맛보다'는 서언의 제목처럼 《근대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은 우리에게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않았던 '근대' 이데올로기를 음악이란 기제로 곱씹어보는 책이

다. 어쩌면 '근대'와 '근대성' 자체는 '주입'되고, 어거지로 내면화를 강요당한 가치였다. 트로트와 국악 역시 대중의 예술적 취향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곤 볼 수 없다. 책은 '조국근대화'관상징 조작, 트로트나 국악을 통해 나타난 근대성의 허위, 문화결정론의 허구 등을 통해 이 땅에서 근대적 가치가 빛을 캐코퍼니에 주목하고 있다.

9개의 단편을 묶은 김정욱의 소설집 《장국영이 죽었다고?》에 대해 우찬제는 "실재를 모방한 허구보다는 허구를 모방하는 또 다른 실재의 허구 세계로 과감하게 탈주하는 것,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인식의 새로운 관점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칭언했다. 그의 말처럼 인터넷을 기축으로 한 가상세계나 영화, 텔레비전 등 대중적 허구 문화세계에 접속하여 새로운 존재의 감각을 체험하고 그 감각적 실존을 통해 새로운 실존, 즉 탈존(脫存)을 꿈꾸는 것이 소설의 핵심이다. 표제작 《장국영이 죽었다고?》에서 인터넷 채팅 도중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의 투신자살을 알게 된 주인공이 그를 추억하는 플래시백에 참여하는 대목은 압권이다.

앞 자체보다, 앞을 재해석하고 또 다른 사유와 지식공간으로 확장하는 일이 더 힘든 작업이다. 《지식의 발견》은 일간지 출판담당 기자가 운운 '글 잘쓰고, 아는 것 많은 사람'으로 정평이 난 저자가 평소 쌓은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한 저작물이다. 그간 써온 서평에다 자신의 사유 세계를 혼입함으로써, '남의 지식'이 낳은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지식 세계에 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것처럼 보기도 문 공력이 바탕된 노작임을 인정, 대다수 (출판저널) 기자들은 이 책을 '이달의 책'으로 꼽는 데 동의했다.

《지식의 발견》은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쓴 19권의 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수용의 《피터, 파우스트, 휴머니즘》, 김용욱의 《독기학설》, 서중석의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등 한국의 지적 스펙트럼을 대표할 만한 저서를 선출하며,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크게 '민족주의, 국가주의, 친일의 문제'와 '근대성과 계몽의 문제', '정치·사회·지식의 문제'로 3분했다. 특히 네이션과 친일, 계몽 안에서 계몽과 싸우기,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근대 등 문제적 담론들에 시선을 모으며, 저자 나름의 또다른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1]

